

고유가 틈타 기름값에 불지른 폭리 주유소

에너지시장 감시단, 한 달 새 휘발윳값 광주 114원·전남 120원 ↑ 광주 37곳·전남 254곳...전국 평균 인상분보다 기름값 더 올려

광주·전남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1달 2000원을 넘겼던 지난달, 4곳 중 1곳꼴(26.6%)로는 전국 평균 인상폭보다 기름값을 더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사)에너지·석유시장 감시단이 발표한 '6월의 휘발유 소비자 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주유소 가격을 보면 광주 258곳·전남 834곳 등 1092곳 가운데 전국 평균 인상분보다 더 올려 휘발유를 판 주유소 비중은 26.6%(291곳)

이 단체는 6월 첫째 주(5월29일~6월4일) 주유소 보통휘발유 평균 판매가격과 다섯째 주(6월26일~7월2일) 평균가를 비교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공개된 각 주유소별 판매가격을 보면 광주 258곳·전남 834곳 등 1092곳 가운데 전국 평균 인상분보다 더 올려 휘발유를 판 주유소 비중은 26.6%(291곳)

에 달했다. 광주에서는 전체 주유소의 14.3%에 해당하는 37곳 인상분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전남에서는 30.5%에 달하는 254곳이 평균 인상폭보다 더 기름값을 올렸다.

정부는 고공행진하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30%로 확대했지만 상당수 주유소들은 국제 유가 인상분보다 더 판매가를 올려 받아왔다.

6월 한 달 동안 국제 휘발유 가격은 1당 34.78원 인상한 데 비해 같은 기간 주유소 가격은 124.64원 올랐다.

국제 유가 인상분 대비 1당 89.86원을 더 받은 셈이다. 광주 주유소 보통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6월 1

주 1998.67원에서 2019.15원(2주)→2045.49원(3주)→2080.88원(4주)→2112.68원(5주) 등으로 한 달 새 5.7%(114.01원) 상승했다.

전남지역도 같은 기간 2008.73원(1주)→2031.34원(2주)→2067.86원(3주)→2104.38원(4주)→2128.94원(5주) 등으로 한 달 동안 6.0%(120.21원) 올랐다.

에너지·석유시장 감시단은 "국제 유가와 주유소 가격 인상분을 백분율로 환산했을 때 국제휘발유 가격이 1 상승한 데 비해 주유소는 1.47을 인상했다"며 "국제 휘발유 가격이 상승한 데 비해 주유소는 가격을 많이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주유소 판매가격은 2주 전에 국제 휘발유 가격으로 수입돼 정유사에서 정제과정을 거쳐 공급되므로 수입시점으로부터 2주의 시차를 거쳐 결정된다.

한편 이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기존 30%에서 37%로 확대되면서 광주·전남 휘발유·경유 가격은 5월 둘째 주 이후 8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같은 조치에 따라 1당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38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생겼다.

다만 유류세 인하 효과가 온전히 나타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석유제품은 정유공장에서 나와 주유소로 유통되기까지 통상 2주가 걸리며, 유류세는 정유공장에서 반출되는 순간 붙는다. 이로 인해 유류세 인하분이 판매가격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발생한다.

4일 오후 기준 주유소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은 광주 2104.12원·전남 2119.97원으로, 유류세 인하폭 확대 직전날(광주 2123.28원·전남 2139.8원)보다 각각 19.16원·19.83원 내렸다.

광주와 전남 평균 휘발윳값은 전국 평균을 밑돌긴 하지만 이 기간 동안 판매가격 인하율은 각각 0.9%로, 충남(-0.8%)에 이어 두 번째로 인하율이 낮았다.

인하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2.6%)였고, 인천(-2.2%), 서울(-1.8%), 세종(-1.4%) 등이 뒤를 이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남 56개 해수욕장 개장에 이마트 수영복 매출 258% ↑

물놀이 용품도 684% ↑

5일부터 전남 56개 해수욕장이 잇달아 개장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었던 여름 관련 상품들이 다시 호황을 맞았다.

4일 광주지역 3개 이마트에 따르면 이들 점포의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3일까지(26일 휴무) 수영복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58.4% 증가했다.

같은 기간 물놀이용 신발(아쿠아슈즈)과 방수팩, 방수마스크 등 물놀이 용품 매출은 무려 684.0% 뛰었다.

어린이 물놀이대 많이 쓰이는 부력복 매출은 192.5% 증가했다.

여름 캠핑 수요가 늘면서 텐트(29.4%)와 캠핑 의자(13.9%) 등 캠핑 용품 매출도 전반적으로 1.3% 증가했다.

☞광주신세계는 여름 정기 세일을 진행하는 오는 10일까지 '아레나' '나이크 스윙' 등 인기 수영복 브랜드 제품을 10~2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삼성전자 모델이 삼성 디지털프라자 대치본점에서 Neo QLED 8K를 통해 8K 화질의 디지털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작품은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정록 작가의 'Nabi 30', 김근중 작가의 'Natural Being 843', 정영환 작가의 'Just gazing-resting', 요요진 작가의 'Hug our trees'.

삼성전자, 8K 초고화질에 예술 작품 담았다

다음달 31일까지

Neo QLED 8K 전시회

삼성전자는 4일 이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전국 70개 삼성 디지털프라자에서 'Neo QLED 8K Big Picture in FOR:REST'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국내 미술계와 NFT(Non-Fungible Token) 아트계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8K 화질로 디지털화해 지난 4월 코엑스에서 선보

였던 전시를 전국 삼성 디지털프라자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전시명인 'Neo QLED 8K Big Picture in FOR:REST'는 8K 초고화질 화면으로 예술 작품을 생생하게 담아 사용자에게 숲(Forest)과 같은 휴식(Rest)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실험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한호, 'Natural Being' (존재)을 탐구하며 화업을 이어온 김근중, 평화와 사랑의 메시지를 유쾌한 그림으로 전하는 요요진, 한국 산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담은 임재욱 등 국내 유명 작가 15인

이 출품한 총 18점의 작품을 2022년형 'Neo QLED 8K'를 통해 감상할 수 있다.

Neo QLED 8K는 '퀀텀 미니 LED'와 최신 화질 기술이 만들어 내는 색표현, 디테일, 명암비로 입체감까지 느껴지는 완전한 몰입의 경험을 선사한다고 삼성전자는 전했다.

전시가 진행되는 매장에서는 전시 기간 동안 Neo QLED 8K 구매 고객에게 티빙 24개월 구독권을 증정한다.

삼성전자는 삼성 디지털프라자 외에도 성수동에 있는 카페 마들리에서 팝업 전시를 진행한다. 팝업 전시는 이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진행되며, 8K 화질의 디지털 작품과 원화 작품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전, 발전 빅데이터 플랫폼 개소

한국전력은 10만 종에 달하는 방대한 발전소 운영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호수' 역할을 할 '발전 빅데이터 플랫폼'을 개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한전은 한전 전력연구원에서 '발전 빅데이터 플랫폼 개소식'을 열었다.

개소식에는 정승일 한전 사장과 김흥연 한전 KPS 사장 등 전력그룹사와 산업통상자원부, GS EPS, SK E&S 나래에너지서비스 등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발전 빅데이터 플랫폼은 발전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연료 연소정보, 설비 고장 정

보 등 약 10만 종에 달하는 방대한 발전소 운영 데이터를 저장한다. 특히 한전이 전력분야 디지털화를 통한 설비 운영효율 제고와 탄소중립 실현 견인을 위해 발전회사와 공동으로 구축하고 있는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핵심 역할을 할 예정이다.

한전 측은 발전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발전설비의 이상위험을 사전에 예측해 설비점검과 고장예방 업무를 효율화할 경우 연간 약 385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집된 빅데이터는 민간에도 개방할 예정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코스피 2300선 턱걸이...개인·외국인 이탈

이틀 연속 연저점 경신

코스닥 720선 힘겹게 지켰

코스피가 4일 개인과 외국인의 이탈로 이틀 연속 연저점을 경신하며 힘겹게 2300선을 지켰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08포인트(0.22%) 내린 2300.34에 장을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1일(2305.42)에 이어 2거래일째 연저점을 경신했으며, 2020년 11월2일(2300.16) 이후 1년 8개월여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와 무역 적자, 물가 상승 압력 등 대내외 악재로 인한 불안감이 연일 시장을 짓누르는 모습이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1385억원, 1845억원을 순매도해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외국인은 5거래일째 매도 우위를 이어갔고, 개인은 5거래일 만에 매도 우위로 전환해 지수 하락 압력을 키웠다.

반면 기관은 홀로 3121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닥지수는 6.75포인트(0.93%) 내린 722.73에 마감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81억원, 155억원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홀로 578억원을 순매수했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00.34 (-5.08)
↓ 코스닥	722.73 (-6.75)
↓ 금리(국고채 3년)	3.430 (-0.009)
↓ 환율(USD)	1297.10 (-0.20)

부동산 팝니다

선운지구, 해광상그릴라, 32평

10층, 남향, 일조권, 조망 최상
즉시 입주 가능
급매 - 4억 2천만원 (전세, 3억 2천만원)
일시불 조정가

신안동, 대지, 176평

일반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 보유
타용도 변경가능
급매 - 22억원

남구 덕남동, 임야, 200평, 지분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 접합
개발 호재 많음
매매 - 4천 4백만원
기획 부동산 물건 아님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32평

8층, 남향, 전변쪽 코너, 전망 최상
현재, 보 1천만 월 55만 임차인 있음
매매 - 1억 1천 5백만원 (보증금 포함)
일시불 조정가

문의. 010-3605-5000

투자자 모심

1. 자금 - 5억원 이상
2. 기간 - 2년~3년 정도
3. 물건 - NPL, 급매물, 경매특수물건
4. 수익 - 연 20% 이상 법적 보장
5. 보장 - 근저당 또는 소유권 이전
6. 지역 - 경기, 수도권, 전남/광주
7. 방식 - 단독 또는 공동투자

(주)오천
부동산 투자 전문회사
H. 010-3605-5000